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7호 [루게 제23464호] 주제100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동지,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지체룡동지가 수행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온가보동지, 가경립동지, 리강춘동지, 습근평동지, 리국강동지, 하국강동지, 주영강동지와 각각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었다.

베이징에 도착하신 김정일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립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베이징시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 귀여운 어린이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경립동지와 담화를 나누시었다.

가경립동지는 호금도총서기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중국인민의 이름으로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가경립동지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중앙령도자간의 지도간부들이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총비서동지와와의 상봉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와 25일 베이징에서 뜨겁게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었다.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명계획동지, 국무위원 대병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외교부장 양길지동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장평동지, 상무부장 진덕명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결일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동지가 참가하였다.

호금도동지는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주석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친절한 인사를 전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신데 이어 9개월만에 또다시 방문하신것은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하면서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해 기울이시는 총비서동지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김정일동지께서 중국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의 긴 로정을 오가시며 중국땅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들에 대해 평가해주시는것은 중국인민의 투쟁에 대한 무한한 고무와 적극적인 지지로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시면서 중앙의 지도간부들을 국경역에까지 파견하여 친절히 맞이하고 방문기간 뜨거운 환대를 베풀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중국공산당창건 90돐을 맞게 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활력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경제와 문화, 첨단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드넓은 중국대륙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있는 중화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에 대해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가운데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통보하시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완전한 결례의 일치를 보시었다. 최고령도자들께서는 60여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적로정을 걸어왔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남이 대신할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립장이란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었다.

최고령도자들께서는 지난해 장춘에서의 상봉이후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이 이룩한 합의에 따라 그 문제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이 각 부문에서 노력하였다고 인정하시었다.

최고령도자들께서는 고위급대외교와 인문교류의 강화, 경제교류와 호혜협조의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조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고 쌍방의 공동리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더 잘 수호하고 촉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일련의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합의를 보시었다.

호금도동지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단결을 강화해나가며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는것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의 요구라고 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두 나라로세대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있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바탕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책임을 다해갈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측은 조중친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조중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폭넓게 발전시킬것으로써 두 나라, 두 인민들에게 보다 큰 복리를 마련하여주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려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고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은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불멸의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의 숭고한 뜻과 조중인민의 념원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조중친선을 시종일관 전략적높이와 전방적인 각도에서 중시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다.

또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형제적친선의 뉴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을 각 분야에 걸쳐 활력있게 강화해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조선인민은 립방인 중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회담에서는 최근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중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이후 두 나라사이의 선린, 우호, 친선, 협조가 더욱 증진발전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선당과 정부와 인민이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것을 지지하며 김정일동지의 투리에 전당, 전국,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당의 집권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로정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면서 제12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자랑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고 지적하시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해결을 추구하고자 경제적으로도 협력하는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 리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동지께서 25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었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영일동지,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동지,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지체룡동지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리강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습근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서기인 하국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광백웅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명계획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인 왕호녕동지, 국무위원 대병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외교부장 양길지동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장평동지, 상무부장 진덕명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재동지가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호금도동지께서 와 김정일동지께서 연설하시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운데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의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 공연이 있었다.

이름있는 중앙예술단체들과 국내 및 국제콩쿨수상자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나의 조국》, 《홍루모》연곡, 《나비로 변화》, 《초원에 솟아오른 태양》, 《아득히 먼 그곳에서》, 《나는 북방의 눈을 사랑해》, 《맑은 시내물》, 《명상》, 《사랑의 인사》, 《리별의 시각》을 비롯한 중국노래들과 세계 명곡들, 우리 나라 노래들인 《사향가》, 《꽃피는 일터》, 《도라지》, 《꽃과 같이 피어날 정성》 등 다채로운 형식의 종목들이 나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어 꽃바구니를 전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중앙령도집단의 지도간부들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호금도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와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부강조국 건설위업실현을 위한 총비서동지의 중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축원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5일 숙소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총리인 온가보동지와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다.

온가보동지는 건강에 넘치신 김정일동지를 다시 만나뵙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 총비서동지의 이번 방문일이 20년전 김일성주석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정과 같다고 말하였다.

온가보동지는 1991년 10월 김일성주석동지의 강소성방문시 그이를 동행하던 일들이 눈앞에 삼삼하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7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은 매년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해주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온가보동지를 통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게 전투적인사를 전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리국강동지의 동행에 베이징 교외에 있는 신주디지탈공사를 참관하시었다.

중국의 10대 소프트웨어혁신개발기업의 하나인 신주디지탈공사는 금융, 통신,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을 자체로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며 중국의 여러 주요대상들에 정보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기업체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를 돌아보고 파학자, 연구사들이 최첨단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 제17차대회정신에 따라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었다.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리국강동지는 오찬을 차리었다.

귀국하시는 김정일동지를 베이징역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가경립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베이징시당 서기인 류기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배웅드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동행하면서 성심성의로 안내해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대병국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가서동지, 철도부장 성광조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시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사랑하는 인민들이 기다리는 조국을 향하여 무사히 귀로에 오르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이번에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호금도동지와 중국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일대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구에 빛나게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하늘처럼 믿고 사는 어머니당의 품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해주려는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손길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만진다.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당!
오직 그 품에만 모든 운명을 맡기고 싶은 은혜로운 조선로동당!
그러한 정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빛내어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당에 대한 찬가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쉬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의 심장속에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고이 간직된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왔던가.

수십성상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어머니, 분명 어머니였다.
그 손길은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그 품은 꾸짖어도 매질해도 달려가 안기는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고 따스했다.

세상에 더없이 친근하고 소중한 이 부름은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의 문을 열고 퍼진 진심의 해침이다.

인류역사의 갈피에 수많은 당을 이 존재하였지만 이처럼 인민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당은 동서고금을 없었다.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쳐진 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어머니로 되어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활동의 원칙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요구로부터 출현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매 인간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품으로, 행복한 나날이나 준엄한 나날이나 친한잔사의 삶을 지켜주고 빛내어 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 보호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수십성상의 불멸의 령도를 수놓아오시었다.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하고 보살피는 인민대중과 당사업의 근본문제도뿐 아니라 혁명의 운명과 직결되어있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결음결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참으로 우리 인민은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가며 받아안은 행운을 지닌 긍지높은 인민이다.

혁명적당은 인민대중과 고틱락을 같이하고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동원할 줄 아는 인민적령도풍모를 지닌 령도자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실 때만이 자기의 근본사명에 맞게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내세우신 고귀한 지침이다.

오래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이라는 이 고귀한 칭호에는 사람들을 어머니시정으로 대하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쿵쿵 뛴다.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는 일군만

이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당일군이 될수 있다고,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답게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지니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하고도 뜨거운 손길이 있어 우리 당은 수천만인민들의 운명을 한몸에 안아 살뜰히 보살펴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십성상에 걸치는 혁명령도는 그대로 인민의 친애비어가 되어서 당과 혁명, 인민을 이끌어오신 뜻깊은 날들의 편속과정이었다.

은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땅의 매 인간들의 마음속피로움을 속속들이 헤아려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대를 책에서 나는 알지 않았네 생활이 알게 하였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있던 피로도 그대가 가져주었네라는 노래구절에도 있듯이 그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보호되고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빛내게 된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오늘도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로 깊이 전해지고있다.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주제 66 (1977)년 8월 무소 모란봉경기장 (당시)을 찾으며 집단제조 《조선의 노래》시연회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집단제조에 동원된 교원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고 그들모두를 평가할때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해당 부근 일군들에게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었다. 그후 한 일군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빠진 사람

이 없는가고 물으시었다.
열여섯명의 교원들이 제외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신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다시 료해하도록 하시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다섯명이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이들이라고 왜 경제적 열정이 없겠는가고 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잘 료해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료해를 심화시키려 했지만 한명만은 어쩔수 없었다. 그 사연에 대하여 힘겹게 말씀드리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하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모든 교원들이 표창을 받고 기뻐할 때 남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혼자 몸부림치며 흐느끼는 그의 정상이 얼마나 가혹했는가. 나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혁명을 하는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혁명을 하지 않는가. 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그가 누구든 마지막 한사람까지 품에 안아 돌봐주기 위하여 가슴의 피를 뚫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끝내 마지막 한사람까지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 우리 장군님의 하느같은 믿음을 받아안게 되었다.

어찌 이뿐이랴.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못한 문제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해당 일군들이 현지의 로동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시 이야기, 결함을 범하였던 한 오랜 배우를 굳게 믿었고 큰 경축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시 이야기...

이렇듯 감동없이,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인민이 친민의 심정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왔던가.

자신의 한평생을 위하여 인민이라는 두 글자밖에 남는것이

없다고 하시며 수십성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경애하는 장군님.

하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그런 홀몸하고 참다운 인간, 인민들의 찬찬을 받고 인민들이 진심으로 따르는 일군, 소박하고 겸손하며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인민적품성을 지닌 그런 일군을 알게 되실 때면 제일로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적극 내세워주시다.

잊혀지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시기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자신에게는 인간적합이 있다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어주시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며 곧 자신의 인간철학의 핵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이 그 숭고한 세계에 살도록 이끌어주시던 뜻깊은 말씀의 구절구절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돌보듯이 우리 당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을 친애비어심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늘 가르치고계시다.

친애비어의 사랑이 자자구구에 담긴 력사적인 노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대 대하여》가 발표된 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평생이려는 정녕 불을 안은듯 뜨거워온다.

매해한 그이께서는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인민생활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언제 한번 문제가 들어가 발편잠을 잘것 같지 못합니다. 모든 일군들은 나와 한마음한듯이 되어 기어이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들이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 의 본분을 다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인민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명절날이나 휴식날이나 가림없이

초강도강행군으로 현지도도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그이께서 꽃피우신 사랑의 이야기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각 도들에 건설되고있는 기초식 품공장들을 빨리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그 대책까지 세워주시신 사실, 닭공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잘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이야기...

수천수만리 먼길을 헤쳐오신 피로도 후일 사이이인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을 우리들며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어머니, 어머니라는 부름이 저도모르게 터져나오지 않았던가.

올해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시고 신들메를 후일 사이이인 초강도강행군을 쉬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

세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과 평안북도인의 공장들,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담배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함흥시의 자강도의 공장, 남포소, 통일기계련합기업소, 갑골청년화학련합기업소, 통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이의 마음이 끝이 없기에 인민을 위해 바치는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도 그 끝이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헤치시는 불철주야의 강행군로정을 따라내 조국땅에서는 날에날마다 눈부신 비약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에게 소리치며 잘살 날이 온다는 희망과 탄환을 안겨주는 놀라운 우리들이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 의 본분을 다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보다 풍성한 열매로 주렁질 주제 100 (2011)년,

천만의 아들딸 영웅으로 키워온 그대의 품은 당기밭 기록에 어머니 옷자락이 어려와 뚝배기 노래하노라 ...

정령 새까맣 피터이는 붉은 당기밭을 바라보노라면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와 헌신의 상징과도 같은 야전복자락이 안겨와 눈굽은 찢어질 것만 같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은혜로운 당의 품속에서 혁명을 열고 조국을 열고 인간의 참된 삶을 알게 되었고 장군님 따르는 그길에서 영웅적생장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여 왔다.

이런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번지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당이 없어도, 어머니가 없어도.

그러면 귀중한 조국도, 조공과 사죄주의제도도, 인민의 존엄과 자주적권리, 값높은 삶도 다 잃게 된다.

살아도 죽어도 어머니 우리 당을 영원히 믿고 따르리!

위대한 당의 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인간들의 세계는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것이며 만복을 안겨주는 그 품을 위해 분발하고 일떠서는 인민의 힘은 또 얼마나 거대하고 강위력한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이 땅을 위하여 주체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야만 천만민국의 심정의 분출인양 어머니당에 대한 찬가는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에 끝없이 메아리쳐갈것이다.

김 명 훈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통성변혁하는 사회주의 내 나라

본사기자 립 학 락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강도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강도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가 26일 강계에서 진행되었다.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기룡, 도농촌경제위원회 위원장 박경일, 관제부인 일군들,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주영식책임비서가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50 (1961)년 5월 도내 여러 단원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땅의 포전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는것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어머니수령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시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기신 헌신의 자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문제에 혁명과 건설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며 농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전하지대본입니다.》

지난해 6월, 뜻깊은 고장인 통천군 장산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고장에 어린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자유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수령님의 은덕으로 지난날 락후와 빈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및 사회단체일군들 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도의 경제도대를 강화하고 농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는 도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에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머니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공적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 밑에 지난 50년간 도의 전민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도대가 튼튼히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소들이 수없이 건설되었으며 전도유망한 광물생산기지, 석탄생산기지들이 일떠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장에서 설비들과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였으냐 그 열풍

이 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까지 타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기계공장에서 생산물결전을 파급히 벌리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반하로 돌려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이 동해지구 농사에서 본보기가 될데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였다고, 동북협동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크게 소개하신하여야 하였다고 크나큰 은정도 부여하시었다.

그해 2월에도 이 농장을 찾으신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그해

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까지 타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기계공장에서 생산물결전을 파급히 벌리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반하로 돌려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이 동해지구 농사에서 본보기가 될데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였다고, 동북협동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크게 소개하신하여야 하였다고 크나큰 은정도 부여하시었다.

그해 2월에도 이 농장을 찾으신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그해

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까지 타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기계공장에서 생산물결전을 파급히 벌리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반하로 돌려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농업생산이 동해지구 농사에서 본보기가 될데 대한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였다고, 동북협동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를 크게 소개하신하여야 하였다고 크나큰 은정도 부여하시었다.

그해 2월에도 이 농장을 찾으신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그해

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까지 타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기계공장에서 생산물결전을 파급히 벌리며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반하로 돌려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제 일 기쁜 실 때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반색하시며 더없이 기뻐하시었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니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신께서는 어디에 가나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속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은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며 찬바람, 눈비가 가림없이 불철주야의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우리 인민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담배포국집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하게 꾸러진 식당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을 지니고 담배포로 특색있는 료리를 질종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고있는데 대해 탄복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강도에서도 강계면옥을 새롭게 꾸러놓고 홍주 닭공장에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로 고기쟁반국수를 만들어 봉사하고있다고, 평양의 육류판이나 청류판에서나 맛볼줄 알았던 유명한 고기쟁반국수를 자기 고장에서 맛보게 된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자랑담이 말씀올리었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훌륭한 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

지난해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의 휴원지로 새롭게 개건된 개신청년공원을 돌아보시었다.

유외외락시설들을 리용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도 부감하시었다.

시종 기쁨의 미소를 지시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를 더욱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개신청년공원은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있는데 유외외락의 주변경치가 참으로 멋있다고, 유외외락주변에 살기 뜻을 비추하여 여러가지 꽃들이 다 피게 되면 별한 장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개신청년공원이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고 훌륭한 유외외락시설을 리용하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도 부감하시었다.

시종 기쁨의 미소를 지시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를 더욱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개신청년공원은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있는데 유외외락의 주변경치가 참으로 멋있다고, 유외외락주변에 살기 뜻을 비추하여 여러가지 꽃들이 다 피게 되면 별한 장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개신청년공원이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고 훌륭한 유외외락시설을 리용하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도 부감하시었다.

시종 기쁨의 미소를 지시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를 더욱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개신청년공원은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있는데 유외외락의 주변경치가 참으로 멋있다고, 유외외락주변에 살기 뜻을 비추하여 여러가지 꽃들이 다 피게 되면 별한 장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개신청년공원이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되고 훌륭한 유외외락시설을 리용하여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유외외락의 주변경치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떠세운 희한한 과일생산기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덕성 과수농장에서

청춘과원과 더불어 그 위훈 길이 전하리

은 나라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제단으로 일어나고있는 오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덕성과수농장을 찾아주신 소식은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기쁨과 보다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청춘과원으로 펼쳐진 덕성과수농장을 찾아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2년 사이에 넓은 면적의 현대적인 과수원을 훌륭히 조성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기 지방의 기후조건에 맞는 키낮은사과나무를 생산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며 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우리는 당이 안전준 철의 신념과 의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한 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중에서 그 일부를 전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수업부문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현대적인 과수원조성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2년, 그 나날은 불굴의 정신력어린 어떤 인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나날이었다.

농장에서 키낮은사과나무모 생산을 위한 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딘 때였다. 추운 겨울 어느날 저녁 농장일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의 기후조건에 맞는 키낮은사과나무모 생산에 필요한 매지종자를 마련하기 위해 부진, 장진, 풍산군 등 산간지대로 길을 떠났던 농장의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러진 신발, 젖은 옷... 순간 일꾼들은 눈곱이 찢어 젖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사실 매지종자를 마련하기 위해 농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는지 다는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백여리길을 걸어 매지 갔을 때 그들은 어느 한 군의 산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눈 덮인 가파로운 경사가 막아 나왔다. 이들은 주저없이 눈을 헤치며 돌아왔다. 하지만 매지는 보이지 않았다. 또 몇 걸음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격정으로 그들의 가슴은 허전해졌다.

다음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강 의한 의지가 비껴났다. 기어 찾아내어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워갈 비상한 각오로 가슴을 풀고 그들은 또다시 눈 덮인 골짜기를 뚫어나갔다.

《매지다!》

환상을 울리며 그곳으로 달려가던 그들앞에 얼음판이 나타났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한 걸음 옮기기 바쁘게 세 걸음, 네 걸음 미끄러져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발목을 파가면서 한치러치 돌아왔다. 한층, 두층 매지종자를 쫓느라니 손이 얼어 감각이 점점 없어졌지만 그들의 눈곱은 기쁨으로 젖어 들었다.

아침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렇게 산발을 오르내리고 속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땅속으로 갇아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희한하게 전변된 농장의 매일을 그려보며 용기를 내어 또다시 일손을 잡고 씨앗을 골라나갔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지만 그들의 심장은 현대적인 청춘과원건설의 첫 돌과자를 열어나간다는 남다른 긍지로 하여 새차게 높뛰었다.

이렇게 마련된 종자가 있어 농장에서는 봄이 오기 바쁘게 키낮은사과나무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날씨가 점점 혼돈해지고 땅이 부풀어오르면서부터 일감은 더욱 많아졌다.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머 전호식구멍이 파는 근로자들의 얼굴에도 땀이 마를새 없었다.

농장에서는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멍이 파기, 울타리치기, 거름생산...

니망지리가 사과리로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과 하시면서 니망지리가 사과리로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사과리? 순간 일꾼들의 가슴은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더욱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고장은 본래 덕성군 니망지리로 불리워왔다. 그러했던 것이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더불어 농장이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문화촌으로 전변되자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과 하시면서 니망지리가 사과리로 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 고장은 본래 덕성군 니망지리로 불리워왔다. 그러했던 것이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와 더불어 농장이 더욱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 문화촌으로 전변되자

주제 70 (1981)년 10월에 락원리로 고쳐지게 되었다.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가 향기롭고 알이 크며 맛 또한 좋아 이러한 사과고장으로 그 이름이 널리 소문나게 되었다.

이 고장의 이런 매력까지 헤아려보고 그전날의 니망지리가 오늘은 사과리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경에하는 장군님의 말씀속에는 앞으로 농장이 과수업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 그 이름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는 믿음이 담겨져있는 것이었다.

과학원 원장감이 라고 하시며

기 위해 남모르게 애쓴 노력을 아버지장군님께서만은 헤아려주시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나.

일꾼들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었다.

내 기뻐하시었다.

오래전에 만나주셨던 일군을 오늘까지 잊지 않고 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꾼들의 가슴은 더욱더 새차게 높뛰었다.

이렇게 말하였다.

《선군시대 청년으로서 용량 할 일을 한 자를 몸소 만나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 과일대풍으로 기어 이 기쁨을 드리렵니다.》

선군시대 청춘들의 아름다운 희망이고 불리는 맹세였다.

불러는 그 열정을 담았는가 《조선청년행진곡》의 힘찬 선율이 촉박받은 청년작업반들 속에서 힘차게 울려나왔다.

... 우리들이 나가는 곳 어렵고 겁날것 없으리

은 세계를 앞서나갈 광활한 길은 열렸다

... 리수령영웅처럼 우리 장군님의 조국을 한몸바쳐 지켜갈 결의, 사랑하는 고향땅을 과수업의 본보기로 보다 훌륭히 꾸러갈 청년들의 아름다운 희망이 노래를 타고 청춘과원의 하늘가로 팔없이 울려 퍼졌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키 낮은 사과 나무 비배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행복 넘치는 선경마을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크나큰 기쁨을 드린 덕성과수농장 마을은 말그대로 한복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사회주의선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모든 농촌마을들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품지도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러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찍이 이곳을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니망지리 (당시)를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활짝 꽃피는 탁 트인 산악의 푸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박용근동무를 비롯한 농장

일꾼들은 락원리를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훌륭히 꾸러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여왔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농장 현지지도 40일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을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개건한 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몇해전에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이 연구실은 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 뛰어난 창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로 건설한 계곡교양실도 특색있지만 농장유치원은 더욱 훌륭하다. 수십년전 여를 유치원을 열어보시면서 크나큰 온정을 안겨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유치원의 내외부를 원상복구하고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구비품과 어린이생활용품들을 그치지 갖추어 주었다.

복합정물물 리용하는 수백KW능력의 남천3호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집집마다 흘러들어 밤이든 불밝은 창가에 행복의 웃음소리, 노레소리가 높이 울려 퍼진다. 그뿐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에만도 300동의 아담한 농촌문화주택이 새로 건설되고 200세대의 살림집들이 전기화와 함께 메탄가스화가 실현됨으로써 농장은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전변되었다.

최근년간 우리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일본새를 높이 평가 해주시면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수업을 더 발전시켜 근로자들에게 사할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사랑과 믿음에는 우리 농장을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전국의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 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정녕 영광의 그날에 받아안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일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게 하는 보다 큰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우리 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올해 과일생산량을 더욱 늘일으로써 장군님의 크나큰 온정과 기대에 기어 보답하였다.

지금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농장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다.

우리들은 새로운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하며 완강하게 실천해나갈 것이다. 과일생산을 늘이자면 키낮은사과나무 모 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지난 기간의 실천적경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키낮은사과나무모 생산을 늘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겠다. 이와 함께 키낮은사과나무모를 제때에 옮겨심으며 한그루의 과일나무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열매송아주기와 덧거름주기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과일나무마다에 과일들이 주렁지게 하겠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안고 자체의 힘으로 과일생산의 모든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농장을 영원한 청춘과원으로 꽃피우는 것으로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어나갈 것이다.

지배인 김승숙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적 대고조의 불꽃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청년학교에 들어갔다.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여기에 모여 회상학습도 하고 의식으로 갖추어진 악기들을 리듬 청춘의 희망과 열정을 목청껏 노래부를 이 청년들의 행복한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웠다.

농업과학기술식전전실을 돌아본 우리는 한순간에 이르렀다. 동행한 농장일군은 영광의 그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더운 열기가 뿜어나오는 한층 칸을 보시며 온도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다심하게 물어보시고 나서 어느 한 장정의 청년작업반보다 낫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었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컴퓨터실에서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잠시 시간을 아끼며 컴퓨터도 배우고 정보기술습도 하면서 과학농사의 앞잡이 되기 위해 애쓰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돌아보신 청년작업반은 사과꽃 아름답게 피어난 파원면두리에 있었다.

조선식각작지봉을 떠난 여러 건물들이 모자형으로 빙 둘러 서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특색있는지 마치 휴양소 같아 보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바친 리수령영웅을 형상한 벽화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게 보라라는 구호가 튜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적 대고조의 불꽃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청년학교에 들어갔다. 하루일을 끝낸 저녁이면 여기에 모여 회상학습도 하고 의식으로 갖추어진 악기들을 리듬 청춘의 희망과 열정을 목청껏 노래부를 이 청년들의 행복한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웠다.

농업과학기술식전전실을 돌아본 우리는 한순간에 이르렀다. 동행한 농장일군은 영광의 그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더운 열기가 뿜어나오는 한층 칸을 보시며 온도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다심하게 물어보시고 나서 어느 한 장정의 청년작업반보다 낫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주시었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컴퓨터실에서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잠시 시간을 아끼며 컴퓨터도 배우고 정보기술습도 하면서 과학농사의 앞잡이 되기 위해 애쓰는

축복받은 청춘, 아름다운 희망

청년 작업반을 찾아서

청년작업반원들의 모습을 기쁘게 그려보았다.

우리 장군님께서 잘 꾸렸다고 칭찬해주신 취사장에 이르러 저녁식사준비가 한창이었다. 식사보장에 대단히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꾸러진 취사장에서 메탄가스콘로로 콩나물이며 버섯을 맛있게 부는 처녀의 일손에서는 신바람이 일었다.

취사장엔 부식물창고에 들어선 우리 눈앞에 부식물풍년 바다가 펼쳐졌다. 몇년 먹어도 다 먹지 못하리만큼 당면엔 차곡차곡 쌓여있는 고사리, 무우시래기, 미역을 비롯한 말린 부식물들, 단지마다 그득그득 넘쳐나는 여러가지 장 절임이며 식혜, 닭알, 양념감과 장류... 그런가하면 당면, 제일 밀단엔 동인 커다란 용기들에는 수수며 메밀, 팥과 녹두를 비롯한 농산품들이 가득 차 있었다.

《부식물창고를 돌아보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차례질 풍족한 식탁을 그려보시는 것 만면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작업반 인원수를 물어보시더니 또다시 높이 평가해주셨습니다.》

그때일을 자랑스럽게 더듬는 일군의 얼굴에는 자력갱생으로 흥하는 긍지와 자부가 한껏 비껴 있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흥미있게 바라보신 토기동산이며 돼지우리, 소우리를 비롯한 집집 승우리들이 마당에 나선 우리

의 눈앞에 확 안겨왔다. 제힘으로 축산기지를 훌륭히 건설해놓고 생활을 유쾌하게 꾸러가는 이들이 너무나 기특하여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시를 뜨겁게 안겨왔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풍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리라 마음 쓰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파도쳐왔다.

실리가 나게 설게한 태양은 일손에도 자랑은 많았다. 오일을 비롯한 갖가지 담배가 푸르싱싱 자라는 남새온실, 버섯과 콩나물이 먹음직하게 자라는 지하재배장...

청년작업반을 다시금 둘러보는 우리의 귀에는 대단하다고, 자력갱생이 기본이라고, 이 농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하시던 경에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에서 정경히 울려오는 것만 같았다.

결세의 위인의 축복을 받아안은 청춘들... 돌아볼수록 크나큰 격정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축복받은 청춘들의 심정이 어찌지 알고싶어, 어떤 아름다운 희망과 열정으로 가슴을 풀는지 알고싶어 우리는 김매기며 약뿌리기 한창인 파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세현아, 김 한포기

도 놓쳐서는 안돼.》

《알겠어. 누나. 아버지장군님 사랑에 보답하는 데 나도 한몫 단단히 할테야.》

서로 돕고 고무해주면서 길을 매는 그들의 말이 남다른 데가 있어 동행한 농장일군에게 물었더니 아니나다를가 열 마진 청년작업반을 찾으시었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 만나주신 김철순동무와 그의 동생이었다.

수도 평양을 떠나 덕성땅에 진출해왔지만 산설고 물결은 대가 해보지 못한 농사일이 손에 붙지 않아 애를 먹던 처녀였다. 그런데 농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그 심정을 다 헤아려보시고 고향은 어딘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 다정하게 물어주시며 친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활짝 눈물이 앞섰다는 김철순동무는

크나큰 은정 길이 전하는 굽양봉사기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수도 평양의 풍채아름다운 장산기슭에는 푸른 추수를 건축물 웅장한 조선식전경물이 솟아있다.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진 료문관! 절제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훌륭한 굽양봉사기지로 건설된 이 식당은 짜장면, 외찬, 보스를 비롯한 중국음식과 여러가지 민족음식물사를 잘하여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얼마전 우리는 료문관창립 50돐을 맞으며 이곳을 찾았다.

훌륭하게 꾸려진 대중식당들과 판공식당, 연회장, 맥주봉사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주방 등을 가지고있으며 하루에도 많은 인원을 봉사할 수 있는 료문관은 최근에 새로 일떠선 료문관으로 하여 더욱 흥성거리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경숙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료문관의 자랑은 결코 오랜 역사나 음식의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식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세계가 비쳐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전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고

려문관의 자랑스러운 50년 역사를 더듬어

계시면서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장군님-총성도로학장공사에 참가하신 때인 주체 50 (1961)년 5월 27일이었다.

이날도 목도체를 메시고 흠집을 나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급동무들과 함께 공사장까지이 있는 장경식당 (오늘의 료문관)에 들리셨다.

그날 공사장으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한학급에서 공부하는 동무의 동생이 찾아왔다. 그를 만난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래간만에 공사장에서 만난 형제들끼리 정을 나누게 하시려 몸소 식사를 조직하시였던것이요, 학생들과 함께 식당안으로 들어서서서 맛있게 음식을 즐기던 그이께서는 문득 되돌아서시더니 무엇인가를 가늠해보시는것이였다.

그러시더니 려이 높으면 갈구만, 젊은 사람에게는 높은 것이 드는데 나이많은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간이 좀 있는데 식당책임자가 토의하여 이 려를 낮추어보시라, 세멘트만 든 려우에 판자를 덧놓았으니 왜 높아지지는 않겠습니까, 우에 있는 판자들을 얹으면 다니기 편리할것 같습니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더니 판자를 잡으셨다. 학생들과 식당책임자가 만류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께 하시라, 나도 인민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공구를 찾으시어 문목을 쥐고 매끈하게 만드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는 식당책임자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더니 판자를 잡으셨다. 학생들과 식당책임자가 만류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께 하시라, 나도 인민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공구를 찾으시어 문목을 쥐고 매끈하게 만드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러는 식당책임자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식당이 문을 연적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도 누구도 발정하지 못하고 간혹 불편을 느끼는 축들이 있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던 문제를 우리 장군님께서 대변에 포착하시고 즉석에서 대책하시였던것이였다.

나도 인민의 아들입니다! 위인의 고결한 인간미가 뜨겁게 느껴지는 그 말씀에 모두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식당에서 만든 갖가지 음식들을 맛보고 이곳 봉사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면서 여러가지 음식과 그 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과 로리사, 접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 주방설비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식당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전에 평양으로 들어오는 첫 어우이고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에 조신식으로 모셔시라는 여겨 건설하자고 교시하시였다. 이 지기에서는 식당이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마저 자그마한 단층집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시더니 앞으로 장산기슭에 보관듯이 평양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식당을 하나 크게 건설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다듬게 되었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머지않아 장산기슭에 우뚝 솟아나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현대적인 식당을 높였을 때 그리보시는듯 함박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장군님! «그로부터 며칠후 또다시 이곳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문목을 낮추어놓으니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그것을 곧 풀어주는것이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손이 비단이라고 이 런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겉습 니다라고 하시며 뚝내 기뻐하시였습니다.»

리경숙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려문관의 부피두려운 연혁자료를 펼쳐보여주었다.

참으로 료문관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우리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는 길에서 료문관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50년 역사가 연혁사의 갈피마다 새겨져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토록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료문관이 수도시민들을 위한 굽양봉사기지로써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애써주시고 여러 차례 걸쳐서 운영실태를 료해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어느때인가는 머나먼 의국방문의 길에서도 료문관의 개건과 관련하여 마음쓰며 건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굽양설비들과 도구들을 일식으로 갖추도록 해주시였으며 그 후에는 술과 로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술집을 내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료문관에도 술집을 꾸리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관심속에 50년전 250m²의 부지면적을 차지하고 5명의 집대원과 5명의 로리사로 운영하던 자그마한 단층 식당이 오늘날은 4050여m²의 드넓은 부지면적과 수백개의 좌석과 갖춘 우리 인민들의 사랑받는 대중봉사기지로, 해외동포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즐겨찾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대외봉사기지로 자랑될지 고되었다.

정실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료문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모토로 봉사활동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즐기게 될터나되었다.

그나날에 식당에서는 로리의 가지수를 80여종으로 늘이고 그 길을 훨씬 넓이였으며 일상적인 봉사과 함께 명절봉사, 이등봉사 등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진행하여 인민들의 생활상에 이바지하고 수많은

로리축전에서 10여개의 금메달과 20여개의 은메달을 비롯하여 많은 상장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과 원공사업을 비롯하여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료문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은정깊은 감사를 거듭 보내주시면서 그들이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창립 5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료문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어나가는 길에서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열의와 각오가 넘쳐나고있다.

글: 본사기자 장은영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평양산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초 어느날이었다. 평양시에 능력이 큰 유기질비료공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접한 평양산원원장 김성희, 초급당비서 리순임동무들은 자기들의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건설장을 찾았다. 그때 공사장은 건설자들의 힘찬 로투움으로 새차게 들끓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김성희, 리순임동무들이 받은 충격은 실로 컸다.

원장과 초급당비서가 유기질비료공장건설장에 다녀온 소식이 날개라도 들린듯 산원에 퍼져있다. 초급당위원회 산원의 초급일꾼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생각이 깊었습니다. 우린 생각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초급일꾼들에게 리순임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건설장에 가서 많은것을 느꼈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령도의 조강자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에 능력이 큰 유기질비료공장을 잘 건설할데 대하여 여러차례나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난 건설장에서 돌아오며 공장건설을 힘껏 도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급당비서의 진심어린 이야기는 초급일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일꾼들의 이신착의 모범은 산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지원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모든 단위들에서 지원사업준비가 활발히 벌어지던 때였다. 어느날 건설장을 찾았던 운수과장 최계운동무는 당조직에 찾아가 건설장에 필요한 골재수송을 도와줄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그는 운전자들과 함께 많은 골재를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그들의 소행은 산원종업원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부인들과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지난 3월 중순 산원에서는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지성이 깃든 많은 지원물자를 차에 싣고 건설장을 찾았다. 하나하나의 물자마다에는 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기를 바라는 산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있었다.

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풀기차게 이어졌다. 수많은 후원물자와 청량료로, 장갑과 어깨받치 등 그 종류와 가지수도 늘어나고 지원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모든 단위들에서 이사업에 경쟁적으로 참가하였다. 직영원들과 청년동맹원들의 열의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원물자를 가지고 들끓는 현장을 찾을 때마다 산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눈앞이 달랠지는 건설장의 로투움에 감동할수밖에 없었다. 지원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힘있는 선동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건설자들은 이들의 진심어린 지원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며 건설을 다그쳐 끝낼것을 결의하자곤 한다.

특약기자 최수복

이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대학에서는 20여명의 교원들이 10월 8일모범교수자로 자라나고 발명품을 비롯하여 각종 증서상을 50여건, 교원, 연구사들이 집결한 가치있는 소논문들은 200여건에 달한다.

장차산중합성로공장의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현실성있는 과학기술적문제 해결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다.

첨단들과는 신비한것이 아니더 결심하고 달려들면 못해낼 일이 없다.

교원 1사범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으로 빛내일 불타는 열정을 안고 첨단들과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나가고있다. 글: 사인본사기자 리은남

료문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료문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가 26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관제부원 일꾼들, 료문관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지배인 리경숙이 하였다.

보고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50 (1961)년 5월 27일 자그마한 단층집으로 불과하던 장경식당 (료문관)을 찾았으며 몸소 음식맛을 보아주시고 로리담당은 로리와 방범등으로부터 접대봉사, 위생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대로 식당을 크게 건설하고 로리할

정도시대의 연구에 맞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4월 26일 장계제 1 사범대학에서는 도안의 교육부원 일꾼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다.

생물공학실험실과 천미경 실험실, 종합실습장을 비롯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실험실습실들, 실험실습설비들과 기구들, 실험실습교육에 필요한 실험용동물들과 각종 시약들...

정도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험실습교육조건을 훌륭하게 개선하여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해나가고있는 대학 일꾼들의 사업이 주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하겠습니다.»

대학의 실험실습교육의 현대화에 찾아보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컴퓨터와 결합한 실험설비와 기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모든것을 대학자체로 만들었다는것이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첨단 공업대학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지도소시에 접한 그날 대학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젊어서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첨단들과의 앞장에 설것을 결의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

영광의 교정을 더욱 빛내이며

은천군 은천중학교에서

은천군 2중영예의 붉은기 은천중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여 있는 뜻깊은 학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이 학교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학교 건설에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10여차례에 걸쳐 교육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실험실습설비들과 각종 동식물표본들, 광물표본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학교에서는 최근년간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조건과 환경을 잘 갖추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해나온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을 개선하자면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며 교육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을 선군시대의

마음 먹고 달라붙기 탓이다

장계제 1 사범대학 교원, 연구사들

에서는 실험실습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대학실정에 이것은 높은 목표였다.

강정수, 럽명수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꾼들은 자동차도 기계적으로 실험실습교육 현대화의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럴만 한 타당성이 있었다. 자동차도기가 실험실습교육에서 절실히 필요 한데다가 앞선 단위들의 좋은 경험을 배울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교과 안원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이 무이치고 교원 김경석, 연구사 김남혁 동무를 비롯한 실력있는 교원, 연구사들이 여기에 망라되었다.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것을 새롭게 하였다.

70여일만에 새로운 형의 자동차도기가 제작되었을 때 교원, 연구사들은 환성을 올렸다. 비록 작도기리용과정에 이르러지던 부족점들이 나타났지만 대학실정에 자체로 자동차도기를 제작할만 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꾼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그마한 오차도, 그러면 결합도 없는 높은 수준의 만능짜리 자동차도기를 제작하자.

일꾼들은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의 최첨단들과 사상의 진수를 깊이 새겨주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장현소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히 교육에서 직관교육, 실험교육을 널리 벌여야 합니다.»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장현소학교는 자랑많은 학교이다.

주목되는것은 학교에서 정도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원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이다.

교실들과 실험실들마다 현대적인 직관교육수단을 그 흔하게 갖추어놓았으며 교육실험에 의의있는 실험기구, 교편들, 다매체전집물들을 수많은 창안제작하여 최근년간에 전국적인 범위의 실험기구 및 교편전시회에서 1등을 쟁취하곤 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학교일꾼들과 교원들의 불타는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2월 어느날 교원 모임에서는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교장 송명준동무의 힘있는 호소는 교원들의 가슴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충공 올려주었다. 그들은 교육과정안의 모든 내용을 반영한 다매체전집물들을 제작할것을 결의해나갔다.

리현주, 김옥순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여러 단위를 찾아가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으며 수많은 자료들을 구입하고 컴퓨터 지식을 쌓아갔다. 교수는 교수대로 보강하면 다매체전집물들을 제작한 다는것은 할한 일이 아니었다.

제일 모자라는 것이 시간이었다. 주가속, 신장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말그대로 낮과 밤을 잊고 일했다. 한결의 다매체전집물을 작성하기 위해 한 밤을 꼬박 밝히기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렇듯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모든 교육과정안의 내용들이 반영된 다매체전집물들이 훌륭하게 제작되었다.

이곳 교원들은 달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높은 연구성과의 비결

와우도구역에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내도록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꾼들은 바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관념과 태도를 가지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구역에서는 서해해양 연구소의 과학자들을 잘 도와주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들을 해결하며 그들의 사업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문제 등을 놓고 진행된

학자들의 심정에 박동을 더해 주며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이곳 일꾼들의 뜨거운 정성은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로 이어졌다.

과학자들은 수직이용공공장에 나가 수감지침들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정상화의 틀과를 열어놓았으며 바다가양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무베기양식을 과학화할수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한해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상조건을 예보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여 협동농장에서도 자연피해를 미리막고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구역일꾼들의 적극적인 고무와 방조속에 과학자들은 보다 높은 과학연구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출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2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변영립동지와

2011년 아시아페싱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우즈베키스탄의 마슈켄트에서 진행된 2011년 아시아페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26일 귀국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쟁취하였다. 비행장에서 체육성 부상장관이었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26일 귀국하였다. 하고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친선참판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가관

방중국 부총장관 리건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친선참판단이 26일 비행기로 귀국



금메달을 쟁취한 양영립, 양춘성선수들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친선참판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국가관 방중국 부총장관 리건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친선참판단이 26일 비행기로 귀국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시여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주체년호로 불려오는 지난 100년사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목격했던 우리 민족의 운명적 국적인 전환이 일어난 역사로 아로새겨져있다. 지난 세기 초엽 사대와 파쟁으로 당국의 비운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분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합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행동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신분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력사에는 계급해방의 가치를 들고 피압박대중의 단결을 호소한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민족의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온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다 바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그런 절세의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여 독창적인 민족대단합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조국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력사적로정에 충실히 구현하시여 민족대단합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디.》**

해방후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우는 문제는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었다. 조국은 해방되었지만 일부 사부들속에 외세에 대한 환상과 파벌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있어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장애로 되고있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해방의 환희속에 파문된 사람들이 미제의 불법적인 남조선강점지역에 국도와 민족의 분열을 낳고 그것이 장기간

우리 민족에게 제난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민족분열의 위기가 닥쳐오던 그 시국 천리해안의 예지로 정세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실 구상을 펼쳐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민들과의 첫 상봉이였다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신 력사적인 개인연설의 그 뜻깊은 날에 내놓으신 구호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문맹은 사람은 문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민족대단합의 구호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합구호는 너무도 통속적이고 심오한 뜻으로 하여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아버지수령님의 개인연설에 무한히 고무된 각계각층 인민들이 해방된 조선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남조선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 및 열혈청년들, 광선적인 지식인들은 사신을 헤치고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단결의 구호가 그렇듯 온 겨레의 심금을 울리고 열광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것은 거기에 애국애족적인 민족대단합사상이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합사상은 정권과 신앙의 차이, 사회적지위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찾자리에 놓이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자 실천하기 위하여 단합해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적운영개척에서 무한대한 힘을 가진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 기초하고있다. 자기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나갈 때 해방될 일이 없다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일제기를 펼쳐신분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러나 력사의 소집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남조선에 강압한 미국은 민족주의정객들의 불행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작을 다하였다. 이에 넘어가 력사회의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남북회담이 성공하리라》라고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부추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조건의 내홍이 있다.》고 하면서 손뼉을 놓고 주저앉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난날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앞에 지은 죄로 하여 민족의 길로 실패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남조선의 국유인민민주주의정권까지도 적국 포섭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이이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일꾼들을 파견하시여 력사회의방향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동포애의 정이 담긴 초대장까지 안겨주도록 하여 민족대단합사상이 되고 그것을 지지옹호하는 현실해나가는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민족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이처럼 다심하신 사랑과 정력적인 명도에서 의하여 평양에서는 마침내 해방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주의중심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대표들을 이 한자리에 모아앉아 조국대단합에 걸싸이는 험난한 시련과 난관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을 확고히 고수하시였다. 미제의 불법적인 《단선단정》음모와 책동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 민족분열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던 주체37(1948)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남조선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선선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력사회의소집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남조선에 강압한 미국은 민족주의정객들의 불행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작을 다하였다. 이에 넘어가 력사회의소집에 대해 큰 관심을 표시하던 인사들까지도 《남북회담이 성공하리라》라고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부추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조건의 내홍이 있다.》고 하면서 손뼉을 놓고 주저앉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난날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앞에 지은 죄로 하여 민족의 길로 실패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남조선의 국유인민민주주의정권까지도 적국 포섭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이이께서는 남조선대표들에게 일꾼들을 파견하시여 력사회의방향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동포애의 정이 담긴 초대장까지 안겨주도록 하여 민족대단합사상이 되고 그것을 지지옹호하는 현실해나가는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민족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아버지수령님의 이처럼 다심하신 사랑과 정력적인 명도에서 의하여 평양에서는 마침내 해방후 처음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주의중심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대표들을 이 한자리에 모아앉아 조국대단합에 걸싸이는 험난한 시련과 난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뜻깊은 력사회의날 북과 남의 대표들은 민족을 찾자리에 놓이고 애국의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며 사랑과 믿음의 한몸에 품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인간애,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동을 겪지 못하면서 그들의 통일전선선회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해나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설사 과거가 어지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정신과 애국의 마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보석처럼 빛내주시고 통일애국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재생의 길을 걸었던가. 그들이 아버지수령님께 자신들의 운명까지 맡긴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민족대단합 결사상이야말로 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받아들일수 있는 사상이며 그의 사상과 명도를 따르는 길만이 민족승리로서의 인생을 참담케 빛내줄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위대한 진리로 뚫힌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위대한 민족대단합사상이 있고 그것을 지지옹호하는 현실해나가는 온 겨레의 단합된 투쟁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민족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서도 메일을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하다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침예한 군사적대결분위기속에서도 어떻게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업이 이룩없이 전진하고있는것인가. 남조선인민들은 그 대답을 정의와 애국의 보검인 선군정치에서 찾았었다. 그들의 심장의 웨침을 들어보자.

《북의 선군의 힘이 강위력하기에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 우리모두가 마음놓고 일하며 살아가고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존엄높고 번성하는 민족으로 떠올리는 위력하고 의로운 보검이다. 선군정치가 있어 이북은 언제나 매를 모고 승리한다.》 남녘겨레의 이경탄의 목소리는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리가 어려웠다.

다음과 같이 썼다. 《북의 전역은 민족의 힘이고 재부이다. 북이 강국이 되니 민족이 강해져 좋고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니 전쟁이 막아져 좋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만 놓고보아도 비록 이 땅에서 전쟁은 려지 않았어도 정세는 졸골 전쟁의 문어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다. 군사적동맹을 휘둘러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침략전쟁광기는 그야말로 극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녘겨레들은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호전파들로 하여금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남조선의 정세는 그야말로 갈라진 강이 되어가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터지지는 않았고 평화가 유지되고 민족의 존엄이 온누리에 파시되고있는것은 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이 땅에 있는가 하는 질리가 어려웠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미국이 전쟁도발의사를 가졌다고 해도 북에 대한 전쟁을 제 마우스로 쉽사리 도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미국이 북과 전쟁으로 맞붙을 경우 북의 강력한 북부공격으로 참패를 당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북이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 어떤 외부세력의 무력침공으로부터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역력을 가지고있는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앞에서 무력해지코만다.》

그러면서 잡지는 《선군의 위력도 다져진 공화국은 반전평화의 강력한 보루》라고 격찬하였다. 부산의 한 퇴직교수도 《이남민중의 심중에는 북의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있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글에서

세력과의 알뜰의 감정을 더욱 드러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당면정황에서 이거보고도 못지않게 쓰는 친러계세력의 악을 치반치계 했으리라는것은 변할 일이다.

이런 속에서 《소장과》도 현재 《당헌》을 고수해 당대표선출에 도전할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 하고있다. 고립무원한 처지에 빠진 친러계세력은 《당헌, 대헌분리》 규정 철폐》를 부르짖으며 주장하며 뺨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있는 당면정황으로 하여 《한나라당》 내부의 뿌리깊은 갈등과 알뜰의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앞으로 《당해신》의 간판명에 달리지 않은 친러계세력은 당면정황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리명박 《정무》의 둘러싸이로 뜻을 하며 남조선사회에 온갖 화를 몰아온 책임을 질 대신 추악한 권력싸움에만 눈이 빨개져서 《한나라당》은 더욱 더 이상 미미해 없다는것이다. 이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당면정황에서 이거보고도 못지않게 쓰는 친러계세력의 악을 치반치계 했으리라는것은 변할 일이다.

이런 속에서 《소장과》도 현재 《당헌》을 고수해 당대표선출에 도전할수 있는 공간을 넓히려 하고있다. 고립무원한 처지에 빠진 친러계세력은 《당헌, 대헌분리》 규정 철폐》를 부르짖으며 주장하며 뺨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있는 당면정황으로 하여 《한나라당》 내부의 뿌리깊은 갈등과 알뜰의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앞으로 《당해신》의 간판명에 달리지 않은 친러계세력은 당면정황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리명박 《정무》의 둘러싸이로 뜻을 하며 남조선사회에 온갖 화를 몰아온 책임을 질 대신 추악한 권력싸움에만 눈이 빨개져서 《한나라당》은 더욱 더 이상 미미해 없다는것이다. 이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유독성화물물질인 고염제를 미군기지안에 몰래 대량 파묻은 사건이 드러나 온 민족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26일을 규탄하는 보도 제97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16일 남조선의 경상북도 칠곡군 예편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이진 미군병사 3명은 자신들이 1978년 상부의 명령에 따라 무려 50t에 달하는 고염제를 기지안에 파묻으며 그로 하여 지금까지도 신세마비형 후유증을 앓고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에 복무한 미국의 다른 퇴역군인들과 이전에 미군기지에서 일하였던 남조선사람들도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여러 기지에서 미군이 유독성화물물질들을 비밀리에 땅에 매몰하였다는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독성물질매몰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아 농작물재해와 먹는 물리용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 《미군강점의 죄악》, 《국민생명을 해치고 우리 땅을 죽음의 땅으로 파괴한 야만행위》로 단죄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 남조선강점 미군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에도 드러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고염제매몰사건이 유독성화물물질인 고염제를 미군기지안에 몰래 대량 파묻은 사건이 드러나 온 민족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과 관련하여 26일을 규탄하는 보도 제97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월 16일 남조선의 경상북도 칠곡군 예편의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이진 미군병사 3명은 자신들이 1978년 상부의 명령에 따라 무려 50t에 달하는 고염제를 기지안에 파묻으며 그로 하여 지금까지도 신세마비형 후유증을 앓고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에 복무한 미국의 다른 퇴역군인들과 이전에 미군기지에서 일하였던 남조선사람들도 경기도 부천을 비롯한 여러 기지에서 미군이 유독성화물물질들을 비밀리에 땅에 매몰하였다는 사실을 잇달아 폭로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야만적인 독성물질매몰로 남조선의 많은 지역이 크게 오염되고 지하수까지 영향을 받아 농작물재해와 먹는 물리용에 엄청난 후과를 미치고있다.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번에도 드러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고염제매몰사건을 신성한 우리의 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고 사람 못살 불모지로 만들어 조신민족을 전멸시키려는 도 하느님의 천후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로 판단하면서 이를 치우는 민족적본능을 안고 준엄히 규탄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조국의 절반방을 장악한 첫날부터 남조선도처에 군사기지와 훈련장, 폭격장, 사격장들을 만들어놓고 광범위한 북침전쟁행위를 일삼으면서 각종 유독성물질을 마구 버리고 파괴 생체환경을 어지럽히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엄중히 해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고염제매몰사건 역시 이번에도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인제와 자연생태환경에 매우 위험한 고농도발암물질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사울이 금지된 고염제를 이미 오래전에 남조선에 끌어들이 1960년대말부터 군사분계선내에 대대적으로 살포함은 물론이요 이의 자연환경을 심히 파괴하고 수많은 민적의 땅을 못쓰게 하였으며 지역의 간인들과 고염제살포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이번에 드러난 고염제매몰사건은 미군의 범죄적행위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몇몇 개별적인 장교들이나 병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것이 아니라

미국은 인제와 자연생태환경에 매우 위험한 고농도발암물질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사울이 금지된 고염제를 이미 오래전에 남조선에 끌어들이 1960년대말부터 군사분계선내에 대대적으로 살포함은 물론이요 이의 자연환경을 심히 파괴하고 수많은 민적의 땅을 못쓰게 하였으며 지역의 간인들과 고염제살포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이번에 드러난 고염제매몰사건은 미군의 범죄적행위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몇몇 개별적인 장교들이나 병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것이 아니라

미국은 인제와 자연생태환경에 매우 위험한 고농도발암물질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사울이 금지된 고염제를 이미 오래전에 남조선에 끌어들이 1960년대말부터 군사분계선내에 대대적으로 살포함은 물론이요 이의 자연환경을 심히 파괴하고 수많은 민적의 땅을 못쓰게 하였으며 지역의 간인들과 고염제살포에 참가하였던 군인들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미국의 조직적인 범죄이며 이 제날의 일이 아니라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는 현대미국의 반인륜적범죄라는것을 말해준다. 애당초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땅은 제멋대로 짓밟고 독성물질을 마구 버려도 되는 식민지오물장뿐이요 남조선인민들 역시 죽든살든 상관할바가 없는 식민지노예인민이다.

현실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시속이 않는 국약무도한 야만의 무리들이며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삶도, 우리 민족의 생존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앙만을 가져다주는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한 투쟁에 파죽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범죄적행위를 비호조장한것은 《한나라당》의 조상들인 역대 피퇴위정권들이다. 이이 리명박대당은 우리 민족을 외세의 침략전쟁정책의 희생물로 바치고 지쳐나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국의 전쟁수익인, 국악한 사대미국노인 리명박적대당을 단호히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대대손손 살아갈 우리의 신성한 삶의 터전을 어지럽히고 조신민족을 영구말살하려는 미제와 역적대당을 철대로 용납하지 않겠거이다.

남조선의 미군철폐운동본부가 20일 문명을 통해 남조선강점 미군의 독성물질매몰행위를 단죄하였다. 문명은 미군이 1978년 경상북도 칠곡군 예편에 있는 기지에 고염제를 무려 50t에 이르는 양을 몰래 파묻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인제에 치명적위험을 주는 독성물질인 고염제를 버려졌음이 이 땅에 내버린 미군의 잔인함에 차가 떨린다고 문명은 규탄하였다. 문명은 더욱 심각한것은 미군이 기지내에 파묻은것이 고염제뿐이 아니라 핵폐기물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성명은 현 《정권》을 심판하는것만이 이 땅에서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생을 구원하며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길이요 주장하였다. 진보세력이 단결된 힘으로 반역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설데 대해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0도 람 통으로서 그중

권력쟁탈전으로 더욱 굼이가는 《한나라당》

보려는 친러계세력의 욕망과 발악이 만만치않아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친러계세력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직을 따내기 위해 기를 쓰고 도전에나섰지만 계파밖에 있는 의원들에게서까지 밀리우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된것이다.

이런 《선군》페배로 친러계세력이 친박군세(친박계) 당원내대표선출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부터 《한나라당》 페거리들은 제가끔 당면정황을 위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해보려고 애용다움하며 이미 송곳이를 드러내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상층인물들의 서소리로 제일 바빠났다는 친러파계(친러계) 세력이다. 대표직리에 사퇴한 안상수를 비롯한 당상층인물들은 거의다 친러계세력으로서 그들은 《한나라당》에서 완전히 독립정기를 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선군》페배의 책임을 지고 밀려나게 되었으니 초조해질만하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 있는 한 불행은 가실수 없다

미군범죄행위의 진상을 밝힐것을 주장, 미군기지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

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명은 독성물질이 매몰된 기지는 물론 전지역의 미군기지 실태를 전부 조사하여 미군범죄의 진상을 날같이 공개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23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주장하는 문명을 발표하였다.

문명은 왜관미군기지에서의 고염제매몰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고 단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밝혀내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문명은 지적하였다. 문명은 범죄자가 범죄를 조사하였다는것조차 당치 않다고 하며 민중의 대표로 이루어진 조사단과 환경전문가들이 공동조사할 때만이 사건의 내막을 올바르게 밝혀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전부 조사하는것이 필수적문제라고고하고 하면서 문명은 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군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남조선이 《행정형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고염제매몰행위로 인한 불안 증대

절반은 부대안에 있었던것이고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고염제를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또한 큰 걱정거리로 되고있다. 매몰된 고염제가 지하수를 따라 주변하천으로 흘러들것이라는것으로 하여 불안이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절반은 부대안에 있었던것이고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고염제를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또한 큰 걱정거리로 되고있다. 매몰된 고염제가 지하수를 따라 주변하천으로 흘러들것이라는것으로 하여 불안이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를 립증하는 기록 발견

24일 남조선 《연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기지에도 각종 독성물질들 매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공병단 제44공병대대 547중대에 소속되어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 3일까지 이곳에서 근무하였던 레이 바우스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당시 구덩이를 파고 수백gal에 달하는 화학물질들과 고무대, 마스크 등도 묻어 놓고 무대도 고백하였다. 또한 이 기지에 있던 미군의 화학물질저장소 1964년 3~4월경에 폐기물건지로 옮겼다고 그는 밝혔다.

1992년에 작성된 미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경제정환으로 인한 사염질이 매우 높은 원인을 놓고 고염제와 연관된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군의 고염제매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미군측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미군의 환경오염범죄를 립증하는 기록 발견

24일 남조선 《연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기지에도 각종 독성물질들 매몰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공병단 제44공병대대 547중대에 소속되어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 3일까지 이곳에서 근무하였던 레이 바우스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당시 구덩이를 파고 수백gal에 달하는 화학물질들과 고무대, 마스크 등도 묻어 놓고 무대도 고백하였다. 또한 이 기지에 있던 미군의 화학물질저장소 1964년 3~4월경에 폐기물건지로 옮겼다고 그는 밝혔다.

1992년에 작성된 미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경제정환으로 인한 사염질이 매우 높은 원인을 놓고 고염제와 연관된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군의 고염제매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 미군의 독성물질 매몰행위를 규탄

별력불가담나라 외무상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진행되는 별력불가담나라 외무상회의에서 25일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박의춘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단결의 상징인 별력불가담운동이 창립된지 50년이 된다고 하면서 운동은 역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극복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성원국들의 집단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찍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을 운동의 기본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운동의 강화발전과 성원국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위하여 불분별주의 로고를 버리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운동창시자들의 숭고한 뜻과 업적, 위업은 계속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별력불가담운동의 역사적 위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운동의 숭고한 리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의 정세는 발전도상나라들을 대변하는 별력불가담운동이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본 회의가 급우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동의 견해를 세우고 대화를 강구해나가는데서 다음의 문제들에 응답한 주목

을 돌려야 한다고 간주한다. 첫째로, 새 세기의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는 주도세력으로서의 운동의 공동행동능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운동의 위력을 높이는데서 운동의 리념과 원칙을 계속 고수해나가는것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운동이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힘의 사용과 위협의 금지원칙을 고수해나가는데 공동행동의 선차적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와 함께 국제관계에서의 강권과 이종기회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평등과 공평성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둘째로, 운동성원국들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운동의 단결과 현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운동의 힘의 원천은 성원국들사이의 단결에 있다. 운동은 단결된 힘, 집단적인 행동으로 성원국들에 대한 외분세력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배격하며 자주권을 수호를 위한 투쟁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할것이다.

운동성원국들은 단결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일부 전진의 불일치들을 극복하고 합의점과

공동행동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운동을 보다더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별력불가담운동은 창설초기부터 시종일관 조선반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 공동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는 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평화회복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력중간과 위협, 핵전쟁연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그로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경계에 이르는 폭발적인 정세가 주기적으로 조성되고있다.

현 사태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회복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우리 제도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국이 야말로 평화의 교관자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절치시 선군정치의 구 쉼진 격려한 전쟁역적들이 없었더라면 조선

반도는 벌써 몇번이고 전쟁터로 되었을것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여지없이 깨어졌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경제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는것을 운동성원국으로서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지난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로부러 남조선당국에 우리 반도의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선의조치로 되어 나아가서 조선반도비핵화의 실현을 담보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이다.

정세의 완화나 아니던 긴장격화의 악안철이나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은 유관측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시대적사명감을 지니고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는 용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일일 갈래의 북남대화를 전제조건없이 열고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나갈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관측들과 협력하여 대화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조미, 북남사이의 적대관계

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의 립장이고 대화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과 제재압박을 계속 추구하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고 회색과 야합하여 북남대결과 전쟁행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대결과 압력, 제재로써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대화에는 대화로, 제재에는 강경으로 대처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이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해주고있는 운동성원국들에 깊은 사의를 표현하시어 앞으로 계속 편성성을 보내주실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별력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켜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해나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을 지지한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운동의 리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그를 구현해나가는 데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민족대단결의 전통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역사적부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널리 소개선진하고 있다.

라오스통신은 일찍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평화를 세움게 밝히고 동향적인 민족대 단결 사상을 내놓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발흥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반일에 국력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는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마트리부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사상에 기초하여 여러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에 국력합과 련합을 형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시어 1936년 5월에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었다.

조국광복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에 국력합을 묶어세운 조선의 현대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선 전국건설인민동맹전선조직이었다.

인디아신문 《데일리 엔드 유머니》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5년전 조선인민혁명군을 창립하시어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어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그 활동은 조선민족대 단결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

다고 전하였다. 기네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는 유일한 강령과 규약, 조직체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조국광복회는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혁명조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카이한 인터내셔널》은 조국광복회는 각계각층 운동성원들의 두리에 묶여 세우고 반일투쟁에 불타오르며 조선인민혁명군 원호와 그 활동보장사업들을 적극 벌여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주석의 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한결같이 반일전선에 떨쳐나섰으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였다고 전하였다.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협회 인터내트롬페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김일성주석께서 항일의 나날에 마흔하신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업적과 민족대단결의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투쟁에서 전인민적결사항정으로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정치군사적기적을 이룩할수 있었다.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민족대단결사상, 혁명적단결의 위대한 전통은 오늘날 선군정당인 김일성장군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경지에서 계속발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신문 《조선중앙통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은 김정일명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속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계승하여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김일성장군대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주석의 조국통일유언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마치고 계신다.

같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된데 대하여 전고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조선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상한 품성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

나는 이번이 제 14차 평양 불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름다운 나라 조선을 방문하였다.

조선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전엔 려행차로 조선에 와본적이 있다. 이번엔 두번째로 방문한 조선이지만 이번 느끼는 감정은 다름없다. 한마디로 조선에 오면 어쩔지 제 집에 온것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감을 느끼게 된다.

평양은 환경오염이 없고 깨끗하고 청신한 도시인것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평양의 맑고 신선한 공기, 화창한 봄날씨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거뜨하게 하여준다. 평양의 거리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화평과 광만, 행복과 넘쳐있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나는 이미전에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조선에 대해 알고있었지만 직접 와서 보고 들은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특히 조선여성들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다. 조선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아름답다. 물론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모만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이다. 인간적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정신상태, 도덕품성에 있다. 비록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조선여성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친절한 얼굴표정, 상냥한 말씨 등을 통해서도 나는 그들의 고상한 품격을 느낄수 있었다.

확실히 조선여성들에게는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볼 때 류다른 매력에 있다. 외형상으로는 유순해보이지만 뜨거운 사랑과 불타는 열정, 고상한 인성미를 지닌 여성들이 바로 조선여성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도 가정용 가진 사람이 고 안해를 가진 남자인것만큼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여성문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불행히도, 여성이 없는세상은 있을수 없듯이 여성의 역할을 떠난 사회발전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날 여성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라 제기되고있다. 여성들이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하여 되면 사회생활이 흐트러지고 사회발전이 저예를 받는다는것은 실생활체험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나는 조선여성들의 활기에 찬 모습, 락판과 열정에 넘쳐 사회생활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키워주신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덕망과 위대한 품도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지나해 김정일명도자께서 중국을 두차례나 방문하신 소식을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하여 보면서 나는 종종 두 나라사이의 친선단결과 우호정신이 굳건하고 뿌리깊다는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여서도 나는 종종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정과 협조정신을 잘 알수 있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여서도 나는 종종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정과 협조정신을 잘 알수 있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여서도 나는 종종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의 정과 협조정신을 잘 알수 있었다.

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종종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이다. 나는 이번 국제상품전람회가간적국적인 무역거래활동을 통하여 중조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전세대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조국건설의 강화발전을 위해 적극 헌신하고 있다. 중국 웨칭가공무역유한회사 리사 정 묘

미국과 서방을 비난

이란국회 부의장이 21일 현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서방을 심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은 세계에서 부정부패를 산생시키는 장본인이며 부정부패의 상징으로

순찰비행 진행

17시간이상의 비행과정에 급유기 《IL-78》로부터 공중급유를 받았으며 방위장관이 어려운 상공에서의 비행술을 연마하였다.

23일 로씨야국방성 대변인이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군의 계속되는 공습만행

가함으로 7명의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을 또 살해하였다. 미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 주민들속에서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 고 로 인 한 교 해

미국의 캔터키주에서 16일 달라스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고 길옆의 도랑에 빠져 20여명의 사상자가났다. 이보다 앞서 15일 시카고 교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

복잡해 지는 중동사태

마슬들의 이름이 적혀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팔레스타인인의 여러 마을과 도시의 역사를 보여 주는 전통적인 옷들을 입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도시 베들레헴에서도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를 벌였다.

다들 올랐던 커라마시에는 팔레스타인파시안인들의 귀향리리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요르단의 각지에서 온 시위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피난생활을 강요하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그들의 귀향리리에 대해 강조하는 구호들을 웨쳤다. 현재 요르단에는 한심한 생활조건에서 사는 팔레스타인파시안인들이 적지 않다.

나크바의 날에 즈음하여 벌어진 시위는 지난 15일에 더욱 고조되었다. 이날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은 자기들의 귀환을 요구하여 대대적인 시위투쟁을 벌였다.

나크바의 날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강경자들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자기들의 귀향리리를 위하여 시위투쟁을 벌리는것은 그들의 응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당국은 군대를 내몰아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인사자들을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인시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과 우려

오스트랄리아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18일 현재의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대하여서와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면하여 다음 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돌을 가장 뜻깊고 숭대하게 기념하며 조선인민의 정의 위업을 지지하는 변태 생활을 보다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총회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중국인들은 이번 5개년계획기간 54개의 저수지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자치구에서는 제 2차 5개년계획기간 61개의 저수지를 또 보수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자치구에서는 224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대다수가 195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사이 건설된것으로서 위험계수들이 많다고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혹한 탄압만행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냈다. 이란의무성인 메바는 파 요르단강서안지역, 이스라엘이 강경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하루빨리 처벌할것을 호소하였다.

요르단의 이슬람교도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 학살행위를 규탄하였다. 로씨야의 무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 폭력행위를 중지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들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여론들은 이번 나크바의 날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사이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중동사태가 보다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평화 회담을 바꾸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 중동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과 《쿠바조절법》 규탄

쿠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동지가 최근 글을 발표하여 미국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심랄히 비난하였다. 글은 오늘 미국이 제국주의 권력을 가지고 날치면서 인류를 제멋대로 통략하고 속이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에는 뻔뻔스럽게도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다고 까짠하였다. 또한 세계를 영원히 온순하게 길들일수 있다고 믿고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해야 할것이라고 글은 단죄하였다.

한편 유엔주재 쿠바대사가 19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쿠바조절법》을 규탄하였다. 그는 이 법이 쿠바에서 미국에로의 비법적 수입을 보장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단죄하였다.

새로운 핵무기시험 감행

미국이 핵무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시험에 계속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미에네르 기성이 지난해와 올해에 블루

토니움을 리용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조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험을 2차례 벌인 사실이 21일에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그러한 핵시험에 대해 반핵단체들속에서 《새로운 핵무기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고 통신은 전하였다.

향의 집회와 시위

에스파냐의 수십개 도시들에서 최근 당국의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졌다. 15일부터 17일까지 편일 계속된 집회와 시위에는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

였다. 그들은 당국의 느릿된 긴축조치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민들의 처지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슬란드에서 21일 그림스보트현에서 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산주변지역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뉴질랜드 커크메크제도의 동북부지역 알바다에서 22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오클랜드시로부터 동북쪽으로 94.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로씨야 캅카스지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19일 리히터척도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이 지역 알바다에 있었다.

화산 분출

이슬란드에서 21일 그림스보트현에서 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화산주변지역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뉴질랜드 커크메크제도의 동북부지역 알바다에서 22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오클랜드시로부터 동북쪽으로 94.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로씨야 캅카스지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19일 리히터척도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이 지역 알바다에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뉴질랜드 커크메크제도의 동북부지역 알바다에서 22일 리히터척도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오클랜드시로부터 동북쪽으로 94.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또한 로씨야 캅카스지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19일 리히터척도 6.2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이 지역 알바다에 있었다.